

장성군 “고령농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화”

지역 60세 이상 농업인 49% 농기계 기종별 시연 교육 확대

전라남도 장성군이 관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 강화에 나섰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인회관에서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장성미래농업대학 청년국제농업학과·스마트기후대응학과 교육생과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농기계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기종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연을 통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여름철 야외작업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온열질환 예방법도 함께 전달했다.

장성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최근 장성군이 농업인회관에서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장성군 제공

을 펼치는데는 전남지역의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

남지역에서 농기계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2024년 426건(사망 11명) △2023년 454건(사망 4명) △

2022년 512건(사망 6명)으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4년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통계’에 의하면 전체 연령 가운데 70세 이상 농업인의 다치는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다. 60~69세도 3%를 기록해 50세 미만인 1% 수준인 것과 큰 차이가 났다.

장성지역은 전체 농업인구의 49.3%가 60세 이상 고령농으로 농업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 까지 영농지도 일환으로 농업인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사고 ‘제로(0)화’를 목표로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2026년 농촌진흥 신규 사업 화순군, 군민 제안 공모

전라남도 화순군은 2026년도 농촌진흥분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군민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업인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농촌진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화순군은 매년 군민 공모를 통해 지역 농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공모를 통해 농업 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틈새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공정·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일 방침이다.

참여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인단체(법인)·작목 생산자단체 등으로 참여 방법은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에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담당자 이메일 전송으로도 가능하다.

제안 사업 공모 대상은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업으로 △경영비 절감 △환경친화형 기술 △부가가치 향상 △틈새 작목 발굴 등 농업 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시범 사업이면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 적합성이 인정될 경우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진흥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참가자 전남교육진흥원, 100명 모집

전라남도 화순군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남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다문화 수용성, 외국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2025년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2026년 1~2월 중 4주간 영국 및 인근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지 학교 정규 수업 참여, 방과후 수업, 홈스테이, 주말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30% 이내 우선선발한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전라남도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 또는 2011년생 학교 밖 청소년 중 보호자와 함께 도내에 계속 거주하는 학생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

영광군, 노후주택 화재예방 총력 누전차단 콘센트 설치 등

전라남도 영광군은 화재에 취약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누전차단 콘센트 설치 및 화재예방 점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해 화재 취약계층을 집중 점검·지원하고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누전차단 자동소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난 13일 담양수북중학교 총동문회 봉사단이 수북면 주평리 마을에서 방충망 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

담양군 제공

담양수북중 총동문회 봉사단, 주평리 마을 방충망 교체 봉사

전라남도 담양수북중학교 총동문회 봉사단이 지난 13일 수북면 주평리 마을에서 방충망 수리 및 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봉사에는 박경순 단장을 비롯한 회원 10명이 참여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반

납하고 50여가구의 방충망을 직접 손봤다.

수북중 총동문회 봉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충망 수리 및 교체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후원금으로 재료비를 마련하고, 단원

들의 재능기부로 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경순 단장은 “내 부모, 형제 같은 분들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어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북면의 이웃을 위한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함평군,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안전 점검

18일 개장… 내달 17일까지 운영 파도풀·워터슬라이드 등 구비

전라남도 함평군이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개장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15일 이상의 함평군수가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18일부터 8월17일까지 총 31일간 운영되며 매년 3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는 전남 대표 여름철 피서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는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가 처음으로 열리며 더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난 6월부터 폭염 및 수상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심의회를 열어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 군수는 이날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등 주요 놀이시설과 수질관리 상황, 안전매뉴얼 이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인구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시관·체험관 등 공원 내 유휴 공간으로의 분산 유도를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에는 인명구조요원, 의료요원, 안전요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물놀이 페스타 대표 프로그램 ‘서바이

벌 물총대전’에 대비해 사워부스 5대와 해바라기 수전 4대의 설치 및 작동 상태도 직접 확인하며 무더위 속 체온 조절을 위한 시설도 세심히 쟁겼다.

올해 물놀이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평군 자체 캐릭터 ‘황박이’를 활용한 차광막 디자인이다. 입구와 물품대여소 등 차광 시설에 황박이 캐릭터를 넣어 이용객에게 대기하거나 쉴 때도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그늘막, 쉼터, 락커룸 등 무료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리된 배달 음식 반입이 가능한 점은 타 지역 물놀이장과 차별화 요소로, 피서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한편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수질관리 및 시설점검을 위해 휴장한다.

함평=신재현 기자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곡성군, 참여자 모집… 60명

전라남도 곡성군은 오는 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6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 저소득,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분야를 반영해 섬진강기차마을 환경정비 등 24개 사업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025년 8월 11일)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참여에 따른 소득 발생으로 저소득층 자격 수급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중복으로 참여가 되지 않아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3일까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8월7일 이후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곡성=김대영 기자